

# 6월 28일 민주노총 총궐기에 동참하자

박근혜는 지방선거가 끝나길 기다렸다는 듯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의 생명과 공공서비스를 제물로 바치려 한다. 선거 직후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더니, 최근엔 공항철도도 사기업에 내다 팔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정부·우익의 눈치를 보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인 규제완화, 민영화, 임금·노동조건 후퇴 등 신자유주의적 “국가 개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의 요구인 통상임금 확대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가 극우 논객 문창극과 공작 정치 전문가 이병기를 각각 국무총리,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이런 노동계급을 향한 공격을 위해서다.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려는 것이다.

## 그러나 박근혜는 정치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박근혜의 공격은 자신감 때문은 아니다. 여권은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으로 패배했다. 비록 대안 부재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광범한 분노가 득표 결과에 온전히 반영되기는 어려웠지만 말이다. 박근혜가 KBS 사장 길환영 해임안을 수용했던 것도 이런 처지의 반영이었다.

특히 지금 총리 후보 문창극의 ‘자진 사퇴설’이 힘을 받고, 장관·청와대 수석들의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는 여전히 정치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로부터의 도전이 거세지면, 집권당의 내분이 조기에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운동이 제대로 저항 태세를 갖춘다면, 박근혜는 칼날 위에 선 처지가 될 수 있다.

## 현대·기아차 조합원들이 총궐기에 앞장서자

세월호 참사가 계급적 분노를 끌어올린 지금,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6월 28일 총궐기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6월 총궐기 때 적어도 하루 파업을 벌여 투쟁을 더 심화시켰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윤 경쟁 체제와 박근혜 정부에 도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자들 고유의 파업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거리의 항의와 파업이 연결되면 동반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럼에도 6월 28일 전국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규모로 집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위해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최저임금·통상임금 정상화 등을 이루자는 것은 우리 모두의 요구다. 이를 위해 가장 잘 조직돼 있는 우리 현대·기아차 조합원들이 전체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요구를 함께 내걸고 총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6월 총궐기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자신감을 고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있을 임단투에도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6월 28일 최대한 많이 모여 우리의 결속력을 과시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7월 파업의 물결로 확대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이 애써야 한다.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통상임금 정상화!

**6.28**  
**노동자 총궐기의 날**

일시 : 2014. 6. 28(토) 16:00  
장소 : 청계광장(이후 행진)  
주최: 민주노총

## 7월 동맹파업 시기 집중이 중요한 이유

지금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병원 노동자들은 6월과 7월에 의료민영화 저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건설노조도 7월에 수만 명이 파업과 시위를 벌인다. 전교조가 법외노조화 반대 항의를 시작했고, 삼성전자서비스·케이ب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도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각 지부들도 임단투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이런 노동자들이 각자의 요구를 내걸고, 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인 규제완화·산업안전·비정규직 등의 문제를 내걸고 동시에 싸운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

6월 28일 총궐기는 바로 이런 투쟁의 중간 집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바탕으로 각 노조의 임단투 일정을 조율해 7월 22일 ‘동맹파업’을 벌이자고 호소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금속노조 중집이 6월 28일 총궐기 참가 대상을 ‘수도권 간부 이상’으로 소극적으로 정한 것은 유감스럽다. 민주노총이 ‘전국 조합원 집중’을 호소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제 현대·기아차지부 등 금속노조 전체는 7월 22일 민주노총 동맹파업을 위해 일정을 맞춰 쟁의권을 확보해야 한다.

## 한날 한시에, 전 계급적으로

민주노총의 주력부대 중 하나인 잘 조직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현대·기아차지부는 그 힘과 조직력에 걸맞게 전 계

급적 단결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가 가진 객관적 힘은 노동운동의 중요한 축이다. 이런 힘을 제대로 발휘할 때 ‘대공장 정규직 이기주의’라는 눈총 대신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사기와 자부심도 커질 수 있다.

현대·기아차지부가 더 넓은 정치적 투쟁에는 소원하고 사업장 임단투에만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위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싸울 때, 곤경에 빠져 있는 박근혜를 더 몰아세울 수 있고 정몽구와 같은 사용자들에게도 압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토양 속에서 통상임금 확대 등 우리의 요구도 더 잘 관철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기아차지부는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6월 28일 ‘전 조합원 집중’을 조직해야 한다. 특히 활동가들이 이런 주장을 펴며 기층에서 조합원들을 설득해 참가를 조직하자.

그리고 7월 22일 다른 사업장의 조합원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파업할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해 나가자. 노조가 각자의 경제적 요구를 내걸더라도, 전국적으로 함께 싸운다면 그것은 큰 정치적 효과를 낼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말부터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다. 진정으로 박근혜 정부에 타격을 주려면 단지 요구 채택이 아니라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시기 집중 공동 파업을 통해 전 계급적으로 싸워서 정부와 자본을 압박해야 한다.

# 통상임금 확대 위해 7월 22일 동맹파업에 함께하자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전투가 시작되고 있다. 아직 금속노조의 입단투는 출발 단계에 있지만, 몇몇 사업장에선 통상임금 확대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월 금속노조 산하 '보쉬' 조합원들은 상여금 8백 퍼센트 중 절반만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그 결과 집행부가 총사퇴했다. 충남의 '정식품' 노조는 통상임금 쟁취를 위해 3일간 공장 점거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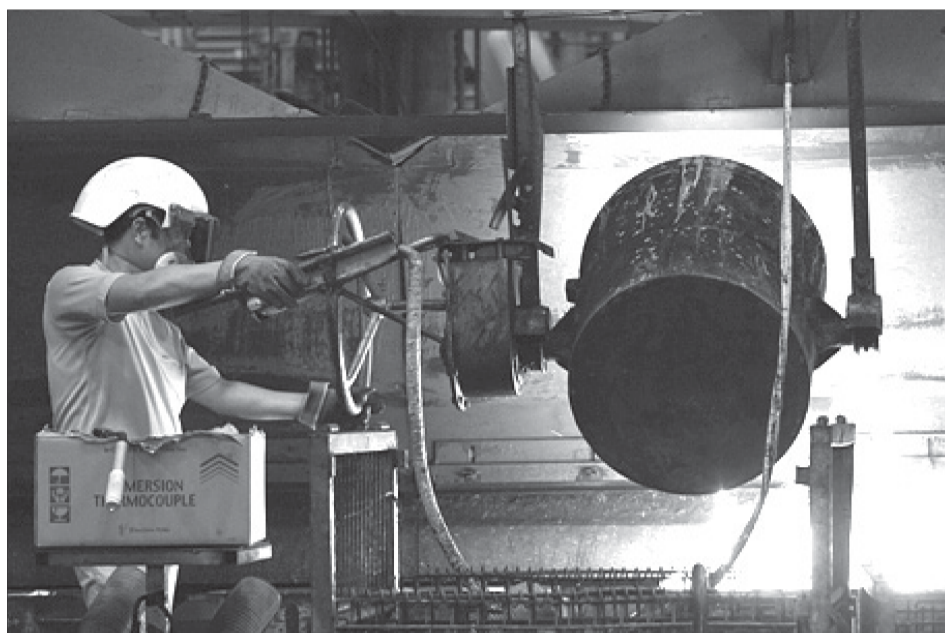
물론, 기업노조인 '발레오 코리아'는 상여금 전체를 성과급으로 돌리는 합의를 해 투쟁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아비하게도 보수 언론은 이를 부각하며 우리더러 그 길을 가라고 떠들고 있다.

사용자들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찌 단결해 통상임금 확대를 막기 위해 다양한 공격을 진행해 왔다. 경총은 올 초에 통상임금을 포함해 임금 인상률을 억제하고,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등을 도입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대·기아차 사측도 일찌감치 통상임금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는 지침을 발표했고, 근로기준법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 노동 대 자본

이렇듯 사측과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따라서 이에 맞서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곧 시작될 입단투에서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들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법·제도도 정비하려는 마당에, 올해 입단투에서 우리의 힘을 확실히 보여 줘야 한다.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힘겹게 번 과거·미래의 임금을 떼먹으려는 시도에 맞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조합원들과 더 크게 단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와 자본은 통상임금 문제를 전체 '노동 대 자본'의 문제로 바라보고 총력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별로 각개

약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우리 역시 다른 노동자들과 단결해 '정치적'으로 맞서야 한다. 통상임금은 전체 노동계급의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중요한 문제다. 현대·기아차 조합원들은 이런 관점에서 통

상임금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점에서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예고한 7월 22일 시기 집중 '동맹파업'은 중요하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현대·기아차지부의 입단투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섭 차수 부족과 보수적 조합원들을 핑계 대며 동맹파업을 외면해선 안 된다. 사측이 초장부터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형식적 교섭에 매여 파업의 힘을 키울 좋은 기회를 유실해선 안 된다. 파업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교섭 차수를 늘리고 쟁의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을 조직하며 동맹파업을 함께할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장 활동가들도 능동적으로 이를 조직해 나가자. 집행부의 소극성만을 문제 삼으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시기 집중 동맹파업 건설에 회의적이었던 안 된다. 통상임금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을 건설해 나가자.

## 과거·현재·미래의 통상임금 모두를 지키자

통상임금 문제를 과거의 임금(체불 임금)과 미래의 임금(확대 적용) 문제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과거의 임금은 소송으로 해결하고 미래의 임금은 입단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전략은 우리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다.

현재 많은 노조들이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만 2백20곳이 넘는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사업장별로

천차만별이다. 아시아나 항공과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는 1심에서 승소했고, 한 철강업체는 1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한국GM지부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은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파기 환송 조치했다. 상급심에 올라갈수록,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대법원이 보수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세를 볼 때, 통상임금 문제를 분리 대응하려는 시각은 위험하다. 체불임금이 1심에서 승소한다 해도 대법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사측과 정

부는 그 기간 동안 두 손 놓고 한가하게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부와 사용자들은 임금체계 개혁을 통해 통상임금 확대(미래의 임금)를 무력화시키려 다양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런 공격이 성공한다면 체불임금 소송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임금과 미래의 임금 모두를 걸고 강력히 싸워야 한다.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인 현대·기아차지부가 이렇게 대응할 때 다른 사업장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현대차는 울산 1공장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하라

현대차 사측이 울산 1공장 박성락, 김철환, 윤실근 동지를 고소·고발했다.

6월 12일 1공장 라인 가동 중에 사측은 안전조치도 없이 용접 공사를 강행했다. 불뿔이 튀고 용접 가스가 나와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때문에 대의원

과 현장위원들이 정당하게 라인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사측은 오히려 그 다음날 박성락, 김철환, 윤실근 동지를 고소·고발했다. 세월호 참사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체제가 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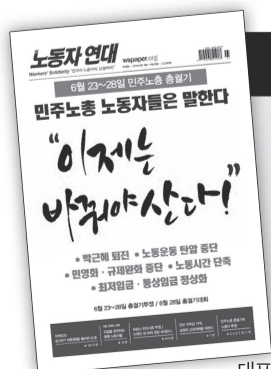
것인데, 현대차 사측은 이런 태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지난해 특근 거부 투쟁을 주도했던 1공장 엄길정·박성락 대의원을 해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박성락 대의원과 1공장 활동

가들이 위축되지 않고 현장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이번 탄압은 이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의 사기를 꺾으려는 시도다.

현대차지부와 활동가들은 사측의 탄압에 반대해 이 동지들을 방어해야 한다.



###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시시오.

문의 : 김우용 (기아차 010-3092-9003)  
정동석 (현대차 010-8363-5695)